



2면
문 대통령, 靑 수보회의서
"추경 편성 검토" 주문

전주매일

2020년 2월 25일 화요일 (음 2월 2일) 제2481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원 2빌 6번지

道, 코로나19 대응 10대 특별대책 추진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확산일로로 치닫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코로나19 함께 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극복해낼 것입니다"라고 말하면서 도민들과 함께 힘을 모으자고 호소하고 특별 대책을 발표했다.

송 지사는 24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14개 시·군과 함께 모든 역량을 총집결해 강력한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코로나19 대응 10대 특별대책'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가 마련한 특별 대책으로, 먼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지역 경제 피해

비상 추경예산안 긴급 편성·재난관리기금 신속 집행
시·군 보건소 일반업무 중단·총력 대응체제 전환 등
송하진 도지사 "함께 하면 이길 수 있다" 도민에 호소

최소화를 위해 비상 추가경정 예산안을 긴급 편성·운영한다. 당장 도의회와 협의를 통해 총 2500억원 규모로 편성해 진료와 지역 경제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의 신속한 집행 ▲코로나19 예방행동수칙 지키기 운동 강력 전개 ▲코로나19 전용

병동 지정, 시·군 보건소의 일반업무 중단 및 총력 대응체제 전환 ▲코로나19와 관련된 모든 정보의 투명, 신속 공개에 나선다.

이밖에 ▲3·1절 기념식 취소 등 불특정 다수가 밀집, 접촉할 수 있는 활동 자제 권고 ▲도내 신천지 관련 시설 전수 조사 및 폐쇄, 대구 신천지교

회 방문자 특별 관리 ▲중국 유학생 기숙사 입소 및 자가격리 ▲다중집합 시설과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소독, 방역 전면 실시 ▲모든 공무원의 비상근무체제 지속 유지를 담았다.

송하진 도지사는 "이 자리를 통해 폐쇄와 자가격리 등 방역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한 후 "코로나19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질병으로 정부와 전북도의 방역 활동을 믿고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24일 현재 전북도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3명이며 이중 1명이 퇴원했다. /김진성 기자



송하진(가운데) 전북도지사는 24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대응 10대 특별 대책 담화문'을 발표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전북도, 도내 방역 대응 체계 강화

선별진료소 24시간 체제 운영 진료 업무 총력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모든 방법 선제적 추진"

정부가 23일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 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전라북도도는 도내 접촉자 관리 및 방역 대응 체계를 더욱 강력히 점검해 나가기

로 했다. 또한, 선별진료소를 24시간 체제로 운영해 선별진료 업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현재 도내에서는 두 명의 확진자가

있으며, 역학조사로 확인한 도내 확진자의 접촉자는 72명, 도 외 확진자의 도내 접촉자는 4명이다. (23일 24:00 기준) 도내 두 번째 확진자(113번 환자)의 도내 접촉자는 총 57명으로, 전주 45명, 군산 5명, 익산 1명, 남원 1명, 김제 5명으로 확인되었다.

도내 세 번째 확진자(231번 환자)의 도

내 접촉자는 총 15명으로, 전주 12명, 익산 1명, 완주 2명으로 확인되었다.

전북도 외 확진자들의 도내 접촉자는 총 4명으로, 전주 2명, 익산 1명, 부안 1명이다.

도 관계자는 "지속적인 접촉자 관리를 통해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가능한 모든 방법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도민들의 불편과 불안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社 告

참신한 인재를 찾습니다

전북 언론의 미래를 열고자 하는 전주매일신문사가 열정과 패기가 넘치는 참신한 인재를 모집합니다.

구 분	모집분야	자격 조건
편집기자(경력·신입)	본사 0명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남·여·나이제한 없음
취재기자(경력·신입)	본사 0명	위와 동일

- ▲ 접수기간 2020년 3월 31일까지
- ▲ 제출서류 이력서 1통, 자기소개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 ▲ 전형방법 1차 서류전형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 접수처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서노송동) 문의 063-288-9700(본사 총무팀)

전주매일

도내 어린이집 자체 휴원 권고

전북도, 코로나19 확산 추세로 영유아 안전 확보 위해 시군별로 휴원시 보육료·인건비 지원기준 완화... 682곳 29일까지 휴원

전북도가 코로나19 확산 추세에 따라 영유아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강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군별 자체 휴원을 권고했다.

도는 최근 대구·경북지역의 집단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급증해 전국적으로 확산 추세에 있고, 경기도에서 16개월 영아가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도내 1,283개소 어린이집에 대한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해 시군 지역 상황에 맞게 자체 휴원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권고는 정부가 지난 23일 감염병 위기를 최고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시군별 지역별 확진자 및 접촉자 발생 규모 등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휴원을 결정토록 한 것이다.

이미 코로나19에 대응해 도내 어린이집 1,283개소 중 확진자와 접촉자가 많은 전주, 김제, 완주 등 682개소가 오는 29일까지 휴원을 결정했다.

도는 이번 휴원에 따른 불편 최소화를 위해 맞벌이 가정 등은 어린이집 내에서 긴급보육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당면교사를 배치·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보육료 및 인건비 지원기준을 완화해 어린이집 운영 부담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그동안 코로나19 전파 차단을 위해 어린이집 내 마스크, 체온계 등 필수물품을 비치하고, 손씻기 및 손소독제 사용 등 위생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주문했으며, 감염병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환경을 갖추도록 교재교구, 체온계, 의자 등을 매일 자체 소독하도록 안내했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휴원에 따라 어린이집 돌봄 현황을 모니터링해 아동 및 보호자와의 소통을 유지하고, 어린이집 마스크 및 손소독제 구매를 위한 예산을 우선 지원해 영유아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구 및 코로나19 지역사회 유행구가를 다녀오거나 2월 중 신천지대교교회 방문자 또는 방문자와 접촉한 종사자 및 아동은 한시적 업무 배제 및 등원을 중단해 감염병 예방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진성 기자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YouTube, KakaoTV, NAVER TV, Daum, NAVER jjctv전북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TV방송채널 kt 올레TV ch.224 Btv ch.285 tv ch.253

JJC 본사: www.jjctv.co.kr tel: 02-2057-001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23F
JJC 전북총국: jjctvjeonbuk.com tel: 063-246-0885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5F